

올해 사흘에 한번 꼴 풍력발전 멈췄다

도내 풍력발전 출력제한 횟수 103회 기록 전년보다 39회 증가... 50억 이상 손실 분석 내년말 제3연계선 준공되면 문제 해소 기대

제주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 확대로 풍력발전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저장·송출하지 못해 발전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출력제한 횟수가 올해 103회를 기록했다.

이같은 풍력발전 출력제한 조치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전력거래소 제주본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 풍력발전 출력제한 횟수는 103회로 나타났다. 지난해 풍력발전 출력제한 조치는 64회이다.

풍력발전 출력제한은 지난 2015

년 3회를 시작으로 2019년 46회, 2020년 77회, 2021년 64회로 증가했다. 지난해 출력제한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그해 4월부터 제1연계선을 통해서 전력 70MW를 육지로 역송했기 때문이다.

2020년 풍력발전 77회 제어로 19.4GWh의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면서 약 34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을 감안 할 경우 올해 손실액은 5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하면 전력 계통에 과부하가 오기 때문에 이를

막기위해 실시하는 조치로, 도내 잉여 전력은 육지부로 전송을 해야 하지만 생산한 전력을 저장하거나 송출할 수단이 없어 불가피하게 이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의 15%정도이지만 전력량이 증가할때는 제주도 전체 전력수요(500MW)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15년 303.95MW에서 2016년 370.78MW, 2017년 405.86MW, 2018년 458.93MW, 2019년 592.23MW, 2020년 742.46MW, 2021년 847.98MW, 2022년 11월 현재 891.33MW로 증가했다.

이같은 풍력발전 출력제한 조치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말 실시할 양방향 전력 전송이 가능한 제3연계선이 준공되면 출력 제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3연계선이 들어오면 20만kW를 역송할 수 있으며, 현 신재생에너지의 1.5~2배 수용이 가능하다. 실시간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ESS)는 2024년 들어올 예정이다.

한국전력거래소 제주본부 관계자는 “내년말 제3연계선 준공을 앞두고 10월부터 시운전을 하게 된다”며 “시운전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자가·사업용 태양광이 늘어나기 때문에 출력제한 조치가 올해보다 가중될 수 있다”면서 “태양광 발전 출력으로 인해 풍력이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풍력 보급 확대”... 산자부 2030년 업무보고 기회발전특구 신규 지정, 과감한 세계·규제특례 적용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수소·해상풍력 육성

정부가 내년에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풍력특별법을 제정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자부는 내년도 정책기조를 경제위기 집중 대응과 위기 이후 미래 준비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실물경제 활력 회복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해 과감한 세계 및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지역 전략산업에 인력·R&D·인프라를 집중 지원해 지역 경제 기

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역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이 적기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한국형 킥스타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내년도 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바이오경제 2.0, 에너지 르네상스, 산업대전환’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5대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수소에너지와 해상풍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수소의 경우 2023년 상반기에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액화수소 플랜트(연 4만톤 규모) 구축 및 발전소별 수소 혼소 실증사업도 착수한다. 해상풍력의 경우 풍력특별법 제정으로 윈드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10MW급 대형터빈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시 리·통 행정 장비 지원 3년간 미지원 마을 우선순위

제주시는 2023년 리·통사무소 행정 장비 교체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은 제주시 96개 리, 16개 통으로 내년 1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세단기, 냉난방기, 엠프 등 7종의 행정 장비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1개 리·통사무소당 장비 1대가 지원되고 장비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주시는 리사무소의 경우엔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 신청 대상 중에서 최근 3년간 미지원한 곳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했다. 통사무소는 기본 행정 장비 신규 신청, 내구연한을 넘긴 기본 행정 장비 교체, 기타 행정 장비 미보유 순서로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총 7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21개 리, 6개 통에 모두 합쳐 5500만원 상당의 행정 장비를 지원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월동무 수확 한파가 수그러든 27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월동무를 수확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도 문화재 활용사업 참여하세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내년 1월 18일까지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도내 소재 지정·등록문화재 및 향토유형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재 향유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제주도 문화재 활용사업’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총 세 분야로, 지역별·테마별 활용 분야는 주민과 합

계하는 지역문화재 활용 프로그램과 제주의 선사·탐라·민속 등의 문화와 방어진역 및 근대역사공간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문화재 가치 확산 및 홍보 분야는 교육·특강·토론회 등 문화재에 대한 의식 고양 사업과 문화재 관련 전시·체험 등의 행사, 소책자·영상 제

작 등 문화재 홍보사업을 지원한다.

제주도내 최초이자 전국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을 기리기 위한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비영리 단체(법인)은 내년 1월 18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mimosa@korea.kr)로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대로기자

사용후 배터리 활용 제품 상용화 앞당긴다 도, 비닐하우스·축산농장 에너지저장장치 등 도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사용후 배터리를 내년부터 비닐하우스, 축산농장 등에서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농업용 운반 차량과 축산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내년부터 현장에서 상용화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도내 기업에 사용후 배터리 전수검사, 제품별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기업과 협업체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태양광 가로등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 등 7개 제품을 개발했다. 올해에는 지게차 등 4개 제품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소형 에너지저장장치, 농업전동차 등 5개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인증 기준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 검사를 앞두고 있다.

특히 올해 10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내년 10월부터 사용후 배터리를 응용한 제품을 상용화하는 데 따른 법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감귤농장과 축산시설에서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이동용 차량과 에너지저장장치를 상용화할 준비에 나섰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10월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검사를 위한 안전시험용을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에 준공하고,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용후 배터리 활용 제품 안전성 검사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진정한 제주축 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 YouTube **석회질소** 검색

달팽이추출물 핵심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농가작업인부 지원 (과수원 발작업)

용량 : 20kg

NAVER D.O.M **코코리**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